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42116

2011년 8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한국어 감탄사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이 시 애

한국어 감탄사 연구

A study of Korean exclamation.

2011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이 시 애

한국어 감탄사 연구

지도교수 최 재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국어교육)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1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이 시 애

이시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11 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Ⅰ. 서론 ····· 1
1.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1
1.2. 선행 연구 검토 ····· 2
1.3. 연구 방법 및 구성 ····· 7

Ⅱ. 감탄사의 특징과 유형 ····· 9
2.1. 감탄사의 특징 ····· 9
2.1.1. 감탄사의 정의 ····· 9
2.1.2. 감탄사의 통사적 특성 ····· 12
2.2. 감탄사의 유형 ····· 15
2.2.1. 감정적 감탄사 ····· 15
2.2.2. 의지적 감탄사 ····· 18
2.2.3. 전달적 감탄사 ····· 19

Ⅲ. 감탄사의 기능 ····· 20
3.1. 독립적 발화 구성 기능 ····· 20
3.1.1. 감정적 감탄사의 경우 ····· 20
3.1.2. 의지적 감탄사의 경우 ····· 21

3.1.2. 전달적 감탄사의 경우 ····· 23
3.2. 발화상 보조적 기능 ····· 26
3.2.1. 문장 도입 기능 ····· 27
3.2.1.1. 의문문 도입 ····· 27
3.2.1.2. 명령・청유문 도입 ····· 29
3.2.1.3. 감탄문 도입 ····· 31
3.2.2. 발화 태도 표시 기능 ····· 33
3.2.3.1. 양태적 수식 기능 ····· 33
3.2.3.2. 선행정보에 대한 태도 기능 ····· 37
3.2.3. 담화표지로서의 기능 ····· 41
3.2.3.1. 대화 시작 표시 ····· 42
3.2.3.2. 주의집중 표시 ····· 43
3.2.3.3. 상대부름 보조 표시 ····· 44
3.2.3.4. 발화 수정 표시 ····· 46
3.2.3.5. 화제 전환 표시 ····· 47
3.2.3.6. 발언권 유지 표시 ····· 49
3.2.3.7. 얼버무림 ····· 50
3.2.3.8. 대화 마무리 표시 ····· 51

Ⅳ. 결론 ····· 55

참고문헌 ····· 58

Abstract

A Study on Exclamation

Lee, Si-ae
Advisor: Choi, Jae-hee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Exclamation, one of nine parts of speech in Korean, represents the surprise, feeling and responses of speakers. It is inherently colloquial and has an independent form which is syntactically separated in a sentence. There have been no intensive studies on exclamation though such exclamation is frequently used in daily language as studies on exclamation centered on syntax. This study discusses exclamation in discourse level as well as grammatical levels focusing on syntax.

Chapter Ⅱ speculates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exclamation.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exclamation are sub-categorized into definition and properties. Exclamation as a situation-based word does not have any functional connection with other words, has permanent grammatical nature in forms, and is used to express internal conditions or mental actions of speakers or deliver speakers' intention. It is colloquial and independent, and

is interpreted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sequential utterance. Such exclamation is divided into three types as follows: emotional, intentional and transmitting.

Chapter Ⅲ divides exclamation into a function of independent utterance and that of utterance support. According to types of exclamation, there are emotional, intentional and transmitting exclamations which are specifically used in dialogue and they are independent irregardless of sequential utterances. Supplemental functions of exclamation include an introductory function in imperative sentence, propositive sentence, and exclamatory sentence, a function of modal modification of speakers' subjective attitude in a function of expressing utterance attitude, and a function to express attitude of preceding information. Finally, a function of colloquial mark which is intended for smooth conversation is sub-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marks: conversation beginning, attracting attention, utterance modification, topic change, voice maintenance, equivocating and conversation ending.

Unlike Chapters Ⅰ and Ⅱ, example sentences in Chapter Ⅲ were based on TV drama scripts to deal with the function of conversation through real utterance.

Ⅰ. 서 론

1.1. 연구 목적과 필요성

국어의 9품사 중 하나인 감탄사는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말”[1]이다. 우리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주로 감탄사를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를 표출하곤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탄사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생활, 특히 구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탄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문장론 위주의 문법 연구가 문어 위주로 이루어져 온 데 반해 감탄사는 주로 구어에서 두드러진 어휘들이기 때문이다[2]. 또한 통사적으로 문장과 관련을 가장 적게 맺으므로 단순한 내용을 품고 있다고 생각되어 온 점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신지연 2001:242).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구어의 실체를 밝

---

1) 『표준국어대사전』(1999:147) 참조.

2) 감탄사가 구어적인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장론 위주의 감탄사 연구를 보이는 예로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2003:107)에서 기술하는 감탄사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감탄사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서 ‘여보, 아, 네’처럼 부름, 대답, 느낌 등을 나타내는 데 쓰이면서, 다른 성분들에 비하여 비교적 독립성이 있는 말들이 있다. 이를 감탄사라고 한다. 감탄사는 문장 속의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성이 있으므로 독립언이라고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 가. 여보, 우리 아이도 이제 다 컸어요.
나. 아, 세월이 빠르구나.
다. 네, 그래요.
(2) 가. 실직자 수당이라든가 뭐 그런게 충분하면 좋으련만!
나. 남편이 어디 어린앤가?

(1)의 예문에 사용된 감탄사는 감탄사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교과서에 제시된 감탄사의 정의만으로는 (2)에서 밑줄 친 단어가 감탄사임을 알아내기 어렵다. 이런 결과는 문장론 차원의 문법연구에서 감탄사는 단순히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품사로써 문장과 관련을 적게 맺고 있다고 생각해온 이유라고 본다. 즉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감탄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문장론 차원의 연구뿐만 아니라 감탄사에 대해 담화적 차원의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히는 데 주력하는 화행론, 화용론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문장론 위주의 문법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감탄사는 점차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아 문장상에서 느낌, 의지, 응답 등의 기능을 함으로써 화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의지를 개념적인 단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나타내는 품사로서의 역할을 한다(신칠범 2011:2~3).

감탄사의 성격상 문장론 위주의 문법연구에서뿐만 아니라 담화문법의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3]. 이것은 감탄사가 문어보다는 구어에 가깝고, 문장에서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담화상에서 단순한 의사표현에 그치지 않고 독립된 발화로서 다양한 담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먼저 문장론 위주의 문법연구 층위에서 감탄사의 정의와 기준을 재검토하여 그 범위를 확립하고, 다양한 감탄사들의 유형을 파악하여 구분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가진다. 다음으로는 담화문법의 차원에서 감탄사가 발화상에서 어떤 맥락적 의미를 가지며, 담화상에서 가지는 기능을 분석하는 것을 이차적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결국 화자들이 담화라는 상호작용적 의사소통 행위에서 어떤 의도로 감탄사를 사용하게 되는가를 밝히는 것이 될 것이다.

1.2. 선행 연구 검토

감탄사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품사 설정과 감탄사 하위 분류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과 담화표지로서 감탄사의 기능에 대한 논의가 있다. 본고의 논의 순서에 따라 먼저 감탄사의 품사 설정과 하위 분류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담화표지로서 감탄사의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정렬모(1946:102)에서는 감탄사를 ‘감동사’로 보고, ‘감동사는 말하는 사람, 자기의 사상 상태를 주관적으로 표시하는 감동말’이라고 하면서 이를 ‘실질감동사’와

3) 신아영(2010:2)에서 ‘담화문법’은 문장 이상의 단위인 담화층위의 문법으로 정의하며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담화문법’의 교육이 이루어져함을 논의하고 있다.

‘형식감동사’의 둘로 나누었다. “실질감동사는 자기에게 실질 뜻을 품고 있는 감동사”로 ‘아아, 아차, 에그머니’ 따위가 속하고, ‘형식감동사’는 “실질 뜻이 없이 다만 형식 뜻만을 가지고 있는 감동사”로 ‘요, 말이야, 저어, 웨에’ 따위가 속한다.

김윤경(1948:149~152)에서는 감탄사를 ‘늑씨’라고 정의하고 ‘늑씨’의 갈래를 “먼저 크게 나누어 즐거움과 괴로움과 대답과 부름의 네 가지로 하고 이를 다시 열여섯 가지”로 나누었다[4].

정인승(1956:158~159)에서는 “다른 낱말과 직접 붙지 않고 따로 떨어진 대로, 월의 앞이나 중간이나 뒤에 덧들어가든지, 혹은 월은 없이 월의 대신으로 되든지 하여, 느낌이나 간단한 의사를 나타내는 낱말들”을 “느낌씨”라 하였다. 감탄사의 분류는 단순히 감정만 나타내는 것, 간단한 의사를 나타내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입버릇으로 말에 섞어내는 것, 말을 더듬을 때 뜻 없이 내는 것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최현배(1971:605~606)에서는 “느낌씨는 마디나 월의 앞에서 그것들을 꾸미는 씨를 이름이니 그 꾸미는 내용(뜻)은 여러 가지의 느낌하고 부름과 대답과의 첫머리하고를 들어내는 것이니라.”고 하여 감탄사를 수식어에 속하는 품사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꾸밈씨하고는, 그 성질이 매우 달라서, 그 꾸미는 품이 그리 긴밀하지 아니하며, 따라 월의 짜임에는 형식상으로 큰 관계가 없느니라.”고 덧붙이면서 감탄사의 독립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감탄사의 분류는 두 부류로 나누어, “놀람, 기쁨 같은 순연한 감정을 들어내는” ‘의지적 느낌씨’라 하였다. 감정적 느낌씨는 의미에 따라 25가지로 세분되었고, 의지적 느낌씨는 9가지로 나뉘었다.

남기심・고영근(1993:181)에서는 “감탄사는 그 자체만으로 화자의 감정과 의지가 표현될 수 있어 다음에 다른 말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독립된 문장과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감탄사가 독립어인 이유를 들었다. 감탄사의 분류는 감탄사를 ”화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의지를 특별한 단어에 의지함이 없이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품사“라고 규정하고, ‘감정감탄사, 의지감탄사, 입버릇 및 더듬거림’으로 나누었다.

---

4) 김윤경(1948)에서는 ‘깃봄감탄사, 놀람, 성남, 슬픔, 걱정, 뉘우침, 여김, 막음, 빈정거림, 코웃음, 아양, 말림, 조임, 힘씀, 부름, 대답감탄사’의 열여섯 가지로 나누었다.

신지연(1988)에서는 감탄사 대신에 간투사라는 용어의 사용을 주장하며, ‘간투사’가 “간접화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과 문장부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문장 부사와는 달리 통사구조상 문장과 관계 맺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발화상의 단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따라서 간투사의 사용이 “통보를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통보의사 없이 단순한 표현만을 위한 것인가”를 분류 기준의 하나로 삼았다. 이것을 ‘[±communicative]'로 나타냈는데, 감정 표현을 위해 청자를 상정하지 않은 경우는 ‘감정적 간투사’라 하여 ‘[-communicative]’로 표시하였고, 청자를 상정하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통보를 목적으로 발화하는 경우는 ‘의지적 간투사’라 하여‘[+ communicative]’로 표시하였다.

오승신(1995)에서는 ‘간투사’를 “발화상에서 다른 단어와 통사적인 구조를 이루지 않으며, 활용이나 파생을 하지 않고, 발화 당시의 화자의 내면 상태나 정신 작용을 표출하거나 화자의 뜻을 전달하는 데에 관례적으로 쓰이는 단어”로 정의를 내리고, 청자가 수신자가 되지 않는 ‘비의사전달적 간투사’와 청자가 수신자가 되는 ‘의사전달적 간투사’로 나누었다. ‘비의사전달적 간투사’는 다시 그 기능에 따라 ‘표출적 간투사’와 ‘행동유발적 간투사’로 구분하였다.

유목상(2007:170)에서도 감탄사를 ‘독립어의 대표격’이라 하면서 “문의 성분이면서도 다른 어떤 성분과 통사적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인 자리에 서서, 감동이나 부름, 응답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성분”이라고 하였다. 감탄사의 분류는 “대체로 감탄사는 의미 분석이 불가능한 표출음으로 본래적인 감탄사는 거의 다 모음으로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감탄사는 “(1) 여러 가지 감동이나 의지나 태도 등을 나타낼 때, (2) 부르는 말이거나 인사나 주의를 환기시킬 때, (3) 대답이나 반문, 또는 동의를 표할 때”에 쓰인다고 기술하였다.

서태룡(1999)에서는 종래의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를 ‘성분 수식사’와 ‘문장 수식사’로 바꾸고 그 외에 ‘담화 수식사’를 설정하여 기존의 감탄사를 수식사의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즉, 관계를 맺는 단위에 따라 담화와 관계를 맺으면 담화 수식사, 문장과 관계를 맺으면 문장 수식사, 명사와 관계를 맺으면 명사 수식사, 동사와 관계를 맺으면 동사 수식사 등으로 하위범주를 분류하였다. 이는 기존의 감탄사,

문장부사, 관형사나, 부사를 한데 묶어 수식사로 바꾼 것인데, 문장 성분상의 수식어와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더구나 성분 수식사의 하위 범주로 동사 수식사, 명사 수식사, 수식사 수식사를 두었는데, 이러한 구분이 기존의 구분보다 문법 기술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힘들다.

다음으로 담화표지로서 감탄사의 기능에 대해 다룬 논의로는 안주호(1992), 오승신(1997), 김태엽(2000), 김향화(2003) 등이 있다.

안주호(1992)는 지금까지 감탄사나 문장부사, 접속부사로 알려져 왔던 것들을 담화적 층위에서 기능하는 '담화표지'로 보고, 담화 참여자가 사용한 의도에 따라 부름표지, 시발표지, 전환표지, 결말표지로 유형화하였다. 부름표지의 경우 의지적 감탄사인 '여보세요'의 변이형들이 쓰였다[5]. 그리고 시발표지에서는 '음, 저, 저기, 어' 등을 형식적인 감탄사로 여겨 머뭇거리거나 입버릇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전환표지와 결말표지에서는 문장부사와 접속부사를 예로 들어 담화표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승신(1997)에서는 감탄사의 담화보조기능을 밝히고 이를 담화표지로 보고 "담화상에서 발화에 담긴 정보 내용에 대한 태도와는 관계없이 담화 자체의 진행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수신자 호출 보조, 발화의 시작 표시, 담화의 마감 의도 표시, 국면 전화의 표시, 청자 반응 표시, 발언권의 유지, 발화의 수정 표시'로 나누어 감탄사를 예문으로 제시하여 연구하였다.

'수신자 호출 보조'는 '이봐, 야'를 통해 부르는 말의 앞에 쓰였고, '발화의 시작 표시'는 '저, 저기', '담화의 마감 의도 표시'는 '네, 그래', '국면 전환의 표시'는 '자', '청자 반응 표시'는 '음, 네', '발언권 유지'는 '음, 어, 에, 이, 그, 저', '발화 수정 표시'는 '아니' 등의 감탄사가 쓰여 담화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논의 하였다.

김태엽(2000)은 담화표지를 화자가 담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입시키는 의도적인 양상으로 보고, 그 유형을 본디 담화표지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그 기

5) '여보시오'의 변이형에는 '여바라, 여보, 여보게, 여보시게, 여보시오, 여보십시오, 여봅시오 여봐라' 등이 있다.

능이 바뀌어 다른 담화표지로 기능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 본디 담화표지, 전성 담화표지로 나누었다. 여기서는 감탄사에 대한 논의가 담화표지 유형에서 '본디 담화표지'에 화자의 입버릇이나 더듬거림과 같은 감탄사가 포함된다는 논의만 될 뿐 담화표지로서 감탄사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김향화(2003)는 담화표지를 상대방에게 말할이의 발화 의도나 심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담화책략의 하나로 보고, 그에 따른 담화표지의 기능을 '주의 집중, 초점표시, 고집의 표시, 담화 참여 유도, 놀람의 표시, 망설임의 표시, 부정의 표시'로 구분하여 감탄사 뿐만 아니라 부사, 대명사, 동사구 등의 다양한 품사의 단어들을 통해 논의 하고 있었다.

'주의 집중'의 기능으로 감탄사 '자', '고집의 표시'에는 감탄사 '글쎄', '놀람의 표시'에는 감탄사 '그래', '망설임의 표시'로는 '글쎄'가 예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초점표시, 담화 참여 유도, 부정의 표시'의 기능으로는 감탄사가 아닌 다른 품사의 단어를 예로 논의 되었다.

위에서 제시한 담화표지의 기능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

<표1> 담화표지의 분류 양상

	분류 기준	담화표지 기능 분류
안주호(1992)	담화 참여자가 사용한 의도에 따른 분류	부름표지 시발표지 전환표지 종결표지
오승신(1995)	담화 자체의 진행을 보조하는 기능	수신자 호출 보조 발화의 시작 표시 담화의 마감 의도 표시 국면 전환의 표시 청자 반응 표시

6) 위에서 논의한 선행 연구 중에서 김태엽(2000)은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지만 감탄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표로 작성하지 않았다.

		발언권의 유지 발화의 수정 표시
김향화(2003)	상대방에게 말할이의 발화 의도나 심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담화책략	주의 집중 초점 표시 고집의 표시 담화 참여 유도 놀람의 표시 망설임의 표시 부정의 표시

본고에서는 Ⅲ장 3.5에서 담화표지로서의 감탄사의 기능을 오승신(1995)에서 제시된 분류기준을 틀로 삼아 다양한 감탄사들이 담화표지 기능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1.3.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감탄사의 정의와 통사적 특성, 유형, 기능을 기존의 논의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 볼 것이다. 또한 담화상에서 쓰이는 감탄사는 화자의 어떤 의도를 반영하는가 하는 점과, 이들은 대화라는 의사소통 행위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하는 점들을 실제 발화 상황에서 일어나는 감탄사에 대한 자료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먼저 감탄사의 정의를 비교·검토하고 감탄사만이 갖는 통사적 특성을 다룬다. 그리고 감탄사의 특성에 따라 감탄사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감탄사들의 의미와 기능적 특성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감탄사의 기능에 대해 분석한다. 감탄사의 기능에는 문장 도입 기능,

발화 태도 표시 기능, 선행 정보에 대한 태도 기능,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으로 나누어 다양한 기능에 따라 감탄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로 통사론적 논의로 이루어진 Ⅱ장에서와 다르게 Ⅲ장에서 사용된 예문은 감탄사의 담화상의 기능을 실제 발화로 다루고자 대화의 실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주로 TV드라마와 시트콤의 대본을 연구 자료로 삼아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사극이나 비현실적인 판타지를 소재로 한 드라마는 제외하고 오늘날의 담화를 담기 위해 일상적인 대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총 8편의 자료는 가족드라마로 '수상한 삼형제', '인생은 아름다워' 2편을 선택했고 로맨스나 코미디 장르의 미니시리즈는 '신데렐라 언니', '파리의 연인', '대물', '욕망의 불꽃', '개인의 취향' 5편,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담화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시트콤으로 '지붕뚫고 하이킥'을 선정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담화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2> TV드라마 및 시트콤 목록

장르	담화 자료
가족드라마	KBS 수상한 삼형제, SBS 인생은 아름다워
미니시리즈	KBS 신데렐라언니, SBS 인생은 아름다워, SBS 대물 MBC 개인의 취향, MBC 욕망의 불꽃
시트콤	MBC 지붕 뚫고 하이킥

Ⅱ. 감탄사의 특징과 유형

이 장에서는 크게 감탄사의 특징과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감탄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감탄사의 특징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감탄사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성격을 파악하고, 감탄사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감탄사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감탄사의 종류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1. 감탄사의 특징

2.1.1. 감탄사의 정의

품사를 분류하고 정의할 때는 기능과 형태, 의미라는 기준을 활용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감탄사를 정의하기 위해 먼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감탄사의 성격을 파악하고, 아울러 기존의 논의를 통해 감탄사를 새롭게 정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기능, 형태, 의미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감탄사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오승신 1995:1).

오승신(1995)에 따르면 기능면에서 볼 때 감탄사(간투사)는 엄격한 의미에서 단어로서의 기능을 가지지 않는 단어라고 표현하였으며, 일반적인 단어의 기능이란 한 단어가 문장 가운데서 다른 단어와 맺는 관계를 말하는 데 비해 감탄사는 다른 단어와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않으므로 문장상의 기능은 없으며 그 대신 독립적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형태면에서 볼 때 감탄사는 활용이나 파생을 하지 않는 단어라고 표현하였지만 수신자를 상대로 뜻을 전달하는 데에 쓰이는 감탄사들 중에는 청자 존대의 어미를 포함하는 형태들이 있다. 예를 들면 ‘여보세요’에는 ‘여보’, ‘여보게’, ‘여보시오’, ‘여보십시오’, ‘이봐’, ‘여봐요’ 등의 다양한 활용형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표현된 '여보세요'는 '여기 보다'라는 형식이 축약이 된 '여보다'라는 동사가 활용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처음부터 '여기 보세요'라는 기존의 문장이 축약이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품사로서의 감탄사는 문장에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휘적인 의미나 문법적 의미, 즉 개념을 가지지 않고 단지 형태적으로 불변한다는 문법적 성질을 가진 단어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미면에서 볼 때, 감탄사는 문장의 의미를 구성하는 어휘적인 의미나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즉 개념을 나타내지 않는 단어이므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느냐 움직임을 나타내느냐 하는 식으로 형식적인 의미로는 정의될 수 없으며, 감탄사 그 자체로 문장이 표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감탄사가 표현하는 내용은 단지 화자의 느낌이나 의지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며 화자의 발화 당시의 내면상태와 심리작용을 비롯해서 화자의 뜻을 최대한 표현한다[7].

세 가지 기준에서 살펴본 감탄사는 독립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기능을 가지며, 형태가 불변하고, 화자의 내면상태와 심리작용을 표현하는 성격을 가진다.

다음으로 감탄사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 대해 살펴보자.

(1) 가. 마디와 월 앞에서 그것들을 꾸미는 씨로 그 꾸미는 내용은 여러 가지의 느낌하고 부름과 대답과의 첫머리를 들어내는 것이다(최현배 1971:605-610).

나. 화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의지를 특별한 단어에 의지함이 없이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품사(남기심 · 고영근 1993:180-185).

다. 화자의 감정이나 의견을 함축하여 표현하는 단어(왕문용 · 민현식 1993:180-185).

라. 따로 정의 내리지 않고 '감정 표시 감탄사, 의지 표시 감탄사, 호응 표시 감탄사'로 구분하여 바로 설명하고 있다(임홍빈 · 장소원 1995:162-164).

마. 발화자가 자신의 특별한 느낌, 즉 놀람, 기쁨, 슬픔, 노여움, 당황, 수줍음 등을 나타내는 말(박영순 1998:134-135).

바. 벅찬 감정이나 부름 응답 등을 나타내는 단어들로 감동사 또는 느낌씨라고도 한

7) 여기서 말하는 내면상태란 화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고 심리작용이란 화자의 인지작용과 같은 것을 말하고 '아이고', '아차', '아야'와 같은 감탄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화자의 뜻을 전달하는 감탄사인 '안녕'은 상대에게 인사의 뜻을 전달하는 말이고, '아서라'는 상대의 행동에 대한 금지의 뜻을 전하는 말이다.

다(이주행 2000:169-171).

위의 (1)에서 논의된 감탄사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감탄사는 '말하는 이의 감정이나 의지를 표현하는 말'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런데 '감정'을 어느 범주까지 인정하느냐 '의지'를 어디까지 한정하느냐에 따라 감탄사의 정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8]. 먼저 '감정'의 경우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 즉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즐거움(樂), 사랑(愛), 미움(惡), 욕심(欲) 등을 나타내는 말을 감탄사라 할 때 '아, 아이고, 으음' 등은 어떠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다. 이들 단어에 대한 사전 풀이말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가. 아[2] 「감탄사」(『표준국어대사전』, 1999:3963)

「1」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초조하거나, 다급할 때 가볍게 내는 소리.

「2」 기쁘거나, 슬프거나, 뉘우치거나, 칭찬할 때 가볍게 내는 소리.

「3」 말을 하기에 앞서 상대편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가볍게 내는 소리.

「4」 ((억양을 내렸다 올리면서)) 모르던 것을 깨달을 때 내는 소리.

나. 아이고「감탄사」(『표준국어대사전』, 1999:4011)

「1」 아프거나 힘들거나 놀라거나 원통하거나 기막힐 때 내는 소리.

「2」 반갑거나 좋을 때 내는 소리.

「3」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탄식할 때 내는 소리.

「4」 우는 소리. 특히 상중(喪中)에 곡하는 소리를 이른다.

다. 으음「감탄사」(『표준국어대사전』, 1999:4843)

「1」 만족하여 긍정할 때 내는 소리.

「2」 못마땅할 때 내는 소리.

「3」 아프거나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소리.

8) 김미선(2010:121~123) 참조.

위에 예를 든 단어들을 통해 감탄사는 상황 의존적이므로 의미가 하나로 규정되기 어렵다[9]. 그래서 예를 들면 '어허허, 피, 으악'[10]이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지 발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의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의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언어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주어진 상황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최현배(1980)에서는 '의지적 느낌씨'는 '꾀임과 부름 같은 의지의 앞머리[前端]를 들어내는 느낌씨'라고 하면서 '단념, 주의, 추어줌, 꾀임, 재촉, 어름, 힘씀, 부름, 대답' 등 9가지로 세분하였다. 결국 '의지'는 '상황이나 대상을 자신이 의도한 대로 이끌려는 강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즉 '말하는 이의 감정이나 의지를 표현하는' 감탄사는 화자의 감정 상태나 내적 욕구를 즉흥적이고 관념적으로 표현하는 데 쓰이는 상황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의미나 범위를 하나로 규정짓기 어렵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감탄사를 정의해 보면, 감탄사는 기능면에서 다른 언어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형태적으로 불변하는 문법적 성질을 가지며, 화자의 내면 상태나 정신 작용을 표출하거나 화자의 뜻을 전달하는 데에 상황 의존적으로 쓰이는 단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1.2. 감탄사의 통사적 특성

감탄사는 그 자체만으로 화자의 감정과 의지가 표현될 수 있어서 후행 발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독립된 문장과 같은 기능을 발휘해 감탄사를 문장 성분상 '독립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정한 어조가 결부되거나 얼굴 표정이나 손짓이 동반되기 때문에 구어체에 많이 쓰인다. 그 외에 감탄사는 홀로 쓰이기도 하지

9) 정렬모(1946:61)에서 '다른 품사는 전부 객관적이오 개념적이지마는 감동사만은 주관적이오 관념적'이라고 지적하고, 유목상(2007:125)에서도 감탄사는 '주관적인 표현의 언어'라고 한 바와 같이 감탄사의 의미는 하나로 규정되기 어렵다..

10) '어허허, 피'는 『우리말큰사전』에서는 감탄사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부사로 등재되어 있다.

만 보통 후행 발화가 동반하여 쓰인다. 이러한 감탄사의 특성을 예문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 특성으로 감탄사는 사람의 감정 상태가 음성적으로 나타나므로 구어적인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아이고'라는 감탄사가 여러 어조나 표정, 손짓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다양한 음성 변이형이 나타나는데 '아이고, 아이구, 아이코, 어이구, 어이쿠, 에고, 에고고, 에구, 에구구, 에그, 에그그, 에쿠, 에쿠나, 에쿠쿠, 에크 에크나, 에게, 에끼, 에키, 엑, 엣' 등이 그 예이다(김미선 2010:123).

두 번째 특성으로 감탄사는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3) 가. 참 좋다.
나. 참, 알 수가 없네.

위의 (3가)의 '참'은 문장에서 부사가 된다. (3나)의 경우 '참'은 회의적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사가 된다. 여기서 '참'은 문장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4) 가. 왜 자꾸 가려고 그래?
나. 왜, 어제 왔던 사람이 또 왔어?

위의 (4가)의 경우 '왜'는 '그래'에 걸리는 부사어로서, 상대에게 던지는 질문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4나)의 경우 '왜'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말로서 다른 문장성분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고 고립적 위치에 놓여 있다. 의미적으로 후속하는 문장과 연관이 있지만 통사적으로는 독립되어 나타난다(김미선 2010:125).

마지막으로, 감탄사는 홀로 쓰이기도 하지만 보통 후행 발화가 동반되어 사용되는 특성을 갖는다.

(5) 가. 식당주인 : 식사 값은 선불입니다.

나. 손님 : 아차!

나′. 손님 : 아차!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위의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탄사가 홀로 쓰여서 의미를 비교적 명확히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즉 (5가)와 같은 의미 전달에 (5나)처럼 홀로 감탄사만 써서 표현해도 깜빡 잊고서 안 가지고 왔음을 나타내고, 이를 (5다)처럼 보충 감탄문을 덧붙이면 의사 전달이 더욱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감탄사 중에는 발음은 같지만 표현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아'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분 후행 발화를 통해서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할 수 있다.

(6) 가. 아! 드디어 내가 장학금을 받는구나. <감격>

나. 아! 버스가 빨리 와야 할 텐데. <초조>

다. 아! 저 신부 정말 아름답다. <감탄>

라. 아!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구나. <실망>

마. 아! 물가가 엄청 올랐네. <체감>

위의 (6)에서 보는 것처럼 감탄사는 후행 발화에 따르는 표현에 의해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요컨대 감탄사는 여러 범주의 낱말과는 달리 홀로 쓰일 수 있는 독립어의 구실을 할 수 있으나 실제 쓰임에서는 상황에 따라 또는 후행 발화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분명한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특성도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감탄사는 감정 상태를 음성적으로 나타내는 구어적인 특성을 갖고, 다른 문장 성분과는 관계없이 홀로 독립되어 나타난다. 그 외에도 감탄사는 후행발화가 동반되어 사용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감탄사는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구어에서 쓰이는 감탄사가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또는 후행 발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감탄사를 품사의 하나로 분류하여 간략하게 다루기보다는 일상적인 담화 차원으로 확대, 연계하여 감탄사의 다양한

기능의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2. 감탄사의 유형

감탄사의 종류는 크게 감정적 감탄사, 의지적 감탄사, 전달적 감탄사로 세분할 수 있다.[11] 그 외에 남기심・고영근(1993)에 의하면 입버릇 및 더듬거림[12] 등의 표현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있다. 이것은 특별한 뜻이 없는 감탄 표현이다. 입버릇 및 더듬거림의 감탄사는 화자가 다음 발화가 생각나지 않을 때 자신의 발화를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담화전략으로 나타나므로 담화표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감탄사의 유형을 감정적 감탄사와 의지적 감탄사, 그리고 전달적 감탄사로 설정한다.

이제 감탄사를 감정적 감탄사와 의지적 감탄사, 그리고 전달적 감탄사로 분류하고 여기에 어떤 형태들이 속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2.2.1. 감정적 감탄사

감정적 감탄사는 놀람, 기쁨과 같은 순전히 감정의 토로를 표현한 어휘를 말한다. 최현배(1971)에서는 감정 감탄사를 '기쁨, 성냄, 슬픔, 걱정, 한숨, 놀람, 두려움, 여김(인정), 넉떨어짐(낙담), 뜻같음(득의), 즐거움, 시원(유쾌), 놀림, 코웃음(비소), 우서움(가소), 깔봄(경시), 속틀림(불평), 침(비방), 가엾음(연민), 기림(칭찬), 반김(환영), 물리침(배척), 아양(애교), 앓음(신음)'의 25가지로 하위분류하고 있다.[13] 서정수(1996)에서는 즐거움을 나타내는 '만세'나 기림을 나타내는 '좋다, 잘

11) 감탄사의 유형은 남기심・고영근(1993)과 정선주(2005)를 참조.
12) '입버릇 및 더듬거림'의 감탄사의 종류에는 '머, 뭐, 그래, 말이지, 말이요, 말이어, 말입니다. 어, 에, 저, 거시기, 음, 에헴' 등이 있다.
13) 감정 감탄사의 하위 체계를 어떻게 설장할 것인가는 순전히 의미상의 문제이므로, 기준을 어디에 둘

한다'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현배(1971)에서 인정한 뜻이 같음을 나타내는 '옳다, 옳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우리말큰사전』과『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좀 더 관용적인데, 모두 '만세, 좋다, 옳다, 옳지'는 인정하고 '잘한다'는 감탄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사전에서 '잘한다'를 감탄사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 말이 비록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 해도 '잘하다'라는 어휘의 활용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잘하는구나!, 잘해!, 잘했어!' 등과 같이 활용하는 낱말까지 감탄사로 본다면, 감탄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말은 감탄사로 처리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감정적 감탄사는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며, 문장의 다른 요소에 관여하지 않는 낱개의 어휘를 말한다(허재영 2001:71~72).

감정적 감탄사의 종류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7) 가. 기쁨 : 하, 허, 하하, 호호, 허허
나. 성냄 : 에익, 엑기, 원, 시
다. 슬픔 : 아이고, 아이구
라. 걱정 : 후, 후유
마. 놀람 : 아, 아야, 아이고, 아이구, 어머나, 이크, 야
바. 깨우침 : 아차, 아뿔사, 엉
사. 놀림 : 어쭈, 용
아. 무시 : 피, 쳇, 애개개, 아주
자. 동정 : 아이구, 저런

그런데 이중에는 하나의 감탄사가 비교적 고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상황에서 두루 쓰이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아야!', '시', '아주', '아뿔싸', '아따', '야' 등이 있다. 이것들은 고정적인 상황에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 오승신(1995:60)에 의하면 하나의 형식이 여러 느낌을 표

것인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는 '아'나 '아이고'류의 감탄사는 반가움이나 한탄, 기막힘, 귀찮음 등 심리적 느낌을 표출하는 데도 쓰이는가 하면, 고통, 힘겨움 등을 표출하는 데에도 쓰인다. '아이고'를 예로 들어 사전적 풀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아이고'

가. 『국어대사전』(1982:2301)

ㄱ. '아플 때, 힘들 때, 실망할 때, 초조할 때, 또는 심란할 때 내는 소리'

나. 『새우리말큰사전』(1989:2183)

ㄱ. '매우 반갑거나 좋거나 상쾌한 감정을 표현할 때에 쓰는 말'

예 : "아이고, 너 얼마만이냐."

ㄴ. '아주 어처구니 없거나 기막힐 때에 쓰는 말'

예 : "아이고, 내 참 답답해서"

ㄷ. '아주 놀랍거나 갑작스런 감정을 표현할 때에 쓰는 말'

예 : "아이고, 날 살려라."

ㄹ. '마음이 아주 언짢거나 못마땅하거나 귀찮거나 싫거나 할 때에 쓰는 말'

예 : "아이고, 난 싫단 말이야."

ㅁ. '매우 분하거나 야속하거나 또는 안타까운 감정을 표현할 때에 쓰는 말'

예 : "아이고, 분해라."

ㅂ. '아주 괴롭거나 지긋지긋하거나 아프거나 할 때에 쓰는 말'

예 : "아이고, 골이야."

이상을 통해 볼 때『국어대사전』에서는 부정적인 느낌을 나타낼 때만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새우리말큰사전』에서는 긍정적이거나,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두루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감정적 감탄사는 발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2.2. 의지적 감탄사

의지적 감탄사란 화자의 의지나 욕구 등을 드러내어 청자에게 청유・명령・부름과 같은 요구의 시작을 알리는 기능을 갖는 어휘를 말한다. 최현배(1971)에서는 의지적 감탄사를 꾀임이나 부름 같은 의지의 앞머리에 쓰이는 감탄사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의미에 따라 '단념, 주의, 추어줌(독려), 꾀임(유치), 재촉, 어름(위협), 힘씀(합력), 부름(호칭), 대답'의 9가지 하위분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의지 감탄사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서정수(1996)에서는 의지적 감탄사가 쓰이는 문장을 간투적 표현이라고 보았다. '간투적 표현이란 간투사를 써서 나타내는 비정규적인 문장으로, 감탄적 표현과 비슷하나 의미적인 면에서 느낌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감탄사와는 다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간투사는 단독으로 쓰여 독립어를 이루며, 뒤따르는 문장 성분을 생략해도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장부사와 다르기 때문에 부사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품사 규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문제로 대두된다. 서정수(1996)에서는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간투사를 감탄사나 부사와 다른 낱말로 규정하고 있는 셈인데, 이러한 입장을 따른다면 간투사라는 새로운 품사가 설정되는 셈이다. 이러한 논의는 품사 분류를 복잡하게 하므로 본 논의에서는 간투사를 인정하지 않고 의지적 감탄사로 규정한다.[14]

본고에서 분류한 의지적 감탄사의 종류에 대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9) 가. 단념 : 에라, 아서라
나. 주의 : (남의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것) 쉿, 쉿쉿, 이놈, 저놈, 요놈
다. 청유 : 자
라. 노력 : 영차, 이샤, 어기여자, 이여자, 어여차
마. 부름 : 여보시오, 여봅시다, 이보시오, 여보

14) 이와 같은 입장으로 유창돈(1980), 이주행(1992), 김승곤(1996)에서도 논의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2.2.3. 전달적 감탄사

전달적 감탄사는 발화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즉, 전달적 기능을 가지는 감탄사로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0) 가. 긍정적 대답 : 네, 그래, 응, 오냐, 그래, 아무렴, 암 , 그렇지
나. 부정적 대답 : 아니, 아니올시다, 아니요, 천만에
다. 의심적 대답 : 글쎄, 글쎄올시다, 글쎄요, 음, 왜, 뭣이

이들 전달적 감탄사의 경우는 화자의 이야기에 대해 긍정이나 부정 또는 의심적임을 표시할 때 쓰이는 대답이며, 이런 감탄사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어느 정도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15].

(11) 가. 청자 지위가 높을 때 긍정표현 : 네, 예, 그래요
나. 청자 지위가 낮을 때 긍정표현 : 아무렴, 그래, 암, 응, 오냐
다. 청자 지위가 높을 때 부정표현 : 아니오, 아니에요, 천만에요
라. 청자 지위가 낮을 때 부정 표현 : 아니, 아니다, 천만에
마. 청자 지위가 높을 때 의심 표현 : 글쎄요, 글쎄올시다
바. 청자 지위가 낮을 때 의심 표현 : 글쎄

15) 사회적 지위에 따른 전달 감탄사의 구별은 장수군(2008:12)에서 인용한 것이다.

Ⅲ. 감탄사의 기능

감탄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홀로 발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담화상에서 선·후행 발화의 정보 내용과 관련하여 보조적으로 쓰인다. 즉, 감탄사는 담화상에서 그 자체로 독립적인 발화를 구성하는 기능과 다른 발화에 종속되어 보조적인 기능을 갖는다. 이 장에서는 담화 상에서 쓰이는 감탄사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3.1. 독립적 발화 구성 기능

감탄사가 독립적 발화를 구성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대화상에서 후행 발화와 관계없이 감탄사 자체만으로 발화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감탄사 유형에 따른 감정적 감탄사, 의지적 감탄사, 전달적 감탄사를 예로 들어 독립적 발화 구성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3.1.1. 감정적 감탄사의 경우

주로 화자의 기쁨, 성냄, 슬픔, 놀람, 한숨, 한탄, 뉘우침 등의 벅찬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적 감탄사는 대화상에서 다음과 같은 독립적인 발화를 구성하는 기능을 갖는다.

(12) 가 : 실장님이 다음 주에 결혼한단다.
　　나 : <u>어머나!</u>
(13) 가 : 저 꽃 좀 봐라. 예쁘지 않니?

나 : 와!

(14) 가 : 딱히 정해 논 평수는 없고 전체적인 가격을 알아 본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요.

나 : 야!, 드디어 국수 먹을 날이 가까워 오나 보죠?

(15) 아유, 좀 쉬었으면 좋겠다.

(16) 어머,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위의 예들 가운데 (12), (13)은 감탄사 뒤에 다른 발화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이고, (14)~(16)은 후행 발화가 이어지는 경우인데 감탄사가 나타내는 느낌이 후행하는 발화에 이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감탄사는 주로 감탄과 같은 강한 정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데, 후행하는 발화의 유형은 질문이나 진술, 명령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감탄사 뒤에 후행 발화와 상관없이 감탄사 자체로 독립적인 발화를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2. 의지적 감탄사의 경우

화자의 의지나 욕구 등을 드러내어 청자에게 청유・명령・부름과 같은 요구의 시작을 알리는 의지적 감탄사의 '여보세요, 에라, 아서라, 자, 영차' 등의 예를 통해 독립적인 발화를 구성하는 기능을 살펴보자. 먼저 부름의 기능을 갖는 '여보세요'에 대해 알아보자.

(17) (전화상에서)

가 : 여보세요?

나 : 여보세요?

가 : 거기 중국집이지요?

(18) 가 : 여보세요?

나 : 네?

가 : 여기 물 한 잔만 주세요.

위의 (17)의 대화에서 '여보세요'는 전화 상황에서 응답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전화 상황에서의 특수한 쓰임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18)의 '여보세요'는 부름이라는 행위의 기능을 갖는다.[16]

(19) 가 : 그 여자랑 헤어지기 전에는 절대 이 방에서 못 나가.
나 : 에라. (모르겠다.)
(20) (아이가 뜨거운 것을 만지려고 할 때)
가 : 아서라. (다칠라)
(21) (구경하고 있는 일행에게)
가 : 자. 서두릅시다.
(22)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 올리며)
가 : 영차

위의 (19)와 (20)에서 '에라'는 생각을 단념하거나 무엇을 포기하려 할 때 쓰이고, '아서라'는 화자가 청자에게 현재 하고자 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말라고 단념시키고자 할 때 쓰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라'와 '아서라'는 단념의 기능을 한다. (21)에서 '자'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원하거나 재촉할 때 쓰이며, 이때 청유의 기능을 한다. (22)에서 '영차'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서 기운을 돋우려고 함께 내는 소리로 쓰인다. 즉 위의 (19~22)에서 대화상에서 의지적 감탄사 뒤에 후행발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대화가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감탄사가 대화상에서 특수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탄사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발화를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16) 오승신(1995:98)에 따르면 부름이라는 행위는 자기가 하려는 말의 수신자를 지정하는 행위이며 상대에게 자신이 시작하려는 발화의 수신자가 되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부름에 대한 응수, 혹은 응답이라는 것은 상대가 하려는 말의 수신자가 될 것을 수락하는 뜻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부름에 대한 응수가 언어적 행위로 나타나든, 비언어적 행위로 나타나든 간에 그 기능은 상대가 하려는 말의 수신자가 될 것을 수락하는 뜻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정상적인 대화에서는 부름말에는 이에 대한 응수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들은 대화에 있어서 하나의 인접쌍을 구성하게 된다. 인접쌍의 첫 부분을 이루는 부름말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발화를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3.1.3. 전달적 감탄사의 경우

청자의 발화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전달적 감탄사의 독립적 발화 구성 기능에 대해 '네, 아니, 글쎄'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다. 먼저 '네'의 경우를 살펴보자.

(23) 가 : 생일 선물 준비했니?
　　나 : 네.
(24) 가 :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다시 그 얘기를 물어 보시니까 제가 화가 난 겁니다.
　　나 : 네. 그랬군요.
(25) 네? 저더러 그 일을 하라고요?
(26) 가 : 아빠, 우리 이번 주에 놀이동산 가요.
　　나 : …….
　　가 : 네?
　　나 : 그러자. 다음 주에 한가해지니 다음 주에 가자.

위의 (23)은 응답이 요구되는 발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의 '네'는 상대가 제시하는 정보, 또는 의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을 알리는 기능을 갖는다. 즉 소위 긍정적 의지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기능에 국한되거나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닌 '네'가 상대방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서뿐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반응 표시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오승신(1995:88)에서 '네'는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긍정의 뜻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부름이라는 행위는 자신이 시작하려는 대화에서 그 부름의 대상이 수신자가 되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네'라는 대답은 '내가 수신자가 되겠다.'라는 수락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를 불러 놓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왜 사람을 불러 놓고 말이 없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 것이다. 상대의 부름에 대해 "네?" 하고 올림조의 억양을 수반하여 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부름에 대

한 응수와 함께 부른 이유를 대라는 요구의 뜻이 첨가되는 경우라고 하겠다.

반면에 부름에 대해 아무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상대가 하려는 말의 수신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부름에 대한 “네”는 다른 요청이나 명령에 대한 수락, 또는 순응과 같은 종류의 발화로 해석할 수 있다.

(24)는 화자가 정보를 인지했을 때 쓰이는 경우이고, (25)는 청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인지하지 못함을 표시하기 위해 ‘네’가 쓰였다. (25)의 경우 ‘네’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기 위해 쓰인 경우이다. 여기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 표시의 의미는 올림조의 억양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17].

(26)에서는 화자의 말에 의한 청자의 반응이 없을 때 다시 반응을 요구하기 위해 쓰인다. 즉 처음 화자가 응답을 요구하는 발화인데 상대가 응답이 없기 때문에 화자가 다시 올림조를 함께한 “네”를 사용하여 응답을 요구한다. 여기서 ‘네’는 “놀러갈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위의 예를 통해 살펴본 ‘네’의 몇 가지 특수한 쓰임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발화를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니’에 대해 살펴보자.

앞서 말한 ‘네’는 여러 가지 특수한 쓰임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아니’는 가부판정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경우에만 독립적인 발화를 구성하게 된다.

(27) 가 : 무슨 일 있니?
　　나 : <u>아니.</u>

(28) 가 : 너 숙제는 다 했니?
　　나 : <u>아니요.</u>

17) (25)의 경우 오승신(1995:90)에서는 자신이 받은 정보 내용이 믿기지 않을 경우로 정보의 내용을 인지했다는 것을 알리면서 거기에 대한 의심을 올림조의 억양을 통해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두 경우에 “네?”대신 “뭐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요?”는 상대방의 정보를 인지했다는 뜻이 없이 직접적으로 내용을 되묻는 말이 되는 데 비하여, “네?”는 일단 상대의 정보를 접수했다는 뜻을 나타냄으로써, 공손한 질문이 되는 것이다.

위의 경우 ‘아니’는 다른 문장과는 독립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발화가 된다. 즉 앞의 질문에 나타난 명제를 부정하는 의미를 전달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의 ‘아니’는 뒤에 같은 뜻을 나타내는 명제적 구성의 문장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 문장과는 독립적으로 하나의 의사 전달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글쎄’의 경우를 보자. ‘글쎄’가 대화상에서 특수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남의 물음이나 요구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낼 때 쓰이고, 두 번째는 상대의 명제 내용에 대해 자신의 뜻을 다시 강조하거나 고집할 때 쓰인다. 먼저 첫 번째의 예를 살펴보자.

(29) 가 : 너 내일 시간 있니?
나 : <u>글쎄.</u>
(30) 가 : 나 돈 좀 꿔 줘?
나 : <u>글쎄.</u>

위의 예는 상대의 질문으로부터 즉시 답변할 말을 찾지 못했을 때 ‘글쎄’가 쓰이고 있다. 이는 화자가 ‘글쎄’를 통해 상대로부터 받은 질문이나 요청의 내용을 다시 떠올려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상대의 질문이나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보류하고 있다. 따라서 ‘글쎄’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아직 화자의 사고가 상대가 던진 질문 내용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낼 때 쓰인다.

두 번째로 상대의 명제 내용에 대해 자신의 뜻을 다시 강조하거나 고집할 때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31) 가 : 여기는 볶음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던데……
나 : <u>글쎄.</u> 여기는 볶음밥이 맛있다니까.
(32) 가 : 그 사람 좀 웃기는 사람 아냐? 지가 뭔데 그런 말을 해.
나 : <u>글쎄.</u> 자기가 뭐라구.

이 경우 (31)의 대화에서 ‘글쎄’는 (31가)와 (31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

며, (32나)는 다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의 경우 '글쎄'는 (32가)가 진술하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32나)도 말은 안 했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임을 암시한다. 즉 '글쎄'는 상대의 말에 대한 반응으로 화자가 상대의 말 이전에 화자가 이미 가졌던 내용의 정보가 환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이것은 상대의 명제 내용에 대해 자신의 뜻을 다시 강조하거나 고집할 때 쓰인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독립적인 발화를 구성하는 '글쎄'는 화자가 재고하는 정보가 상대로부터 받은 정보냐, 아니면 청자와 화자가 공유하고 있는 정보냐에 따라 그 의미 기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억양에 의해 두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남의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낼 때 쓰이는 '글쎄'는 주로 처음에 낮았다가 올라가는 억양을 사용하는 반면, 자신의 뜻을 다시 강조하거나 고집할 때 쓰이는 '글쎄'는 처음 부분을 높고, 강하게 소리 내다가 낮아지는 것이 보통이다(오승신1995:95).

'글쎄'의 두 가지의 경우의 특수한 쓰임은 후행발화와 관계없이 각각 독립된 발화를 구성한다. 또 하나의 형태가 두 가지 의미로 구별되는 이유는 바로 억양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3.2. 발화 보조 기능

발화 보조 기능이란 감탄사가 어떠한 담화 맥락에서 발화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절에서는 의문, 명령, 청유, 감탄문의 문장 유형을 도입하는 기능, 화자의 발화 태도를 표시하는 기능, 또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3.2.1. 문장 도입 기능

3.2.1.1 의문문 도입

감탄사 중에서 전달적 감탄사인 ‘아니’는 기본적으로 부름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으로 쓰인다. 하지만 대화상에서는 이와 달리 화자가 놀람을 나타내거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쓰인다.

(33) 가. 아니! 저럴 수가!
나. 어머나! 저럴 수가!
다. 앗! 저럴 수가!

(33가)의 ‘아니’는 화자가 접한 상황에 대한 놀람의 느낌과 그 상황에 대한 이해 불가의 심리 상태가 나타나 있으며, 하나의 독립적인 발화를 이루고 있다. 인간이 어떤 상황이나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지식세계에 축적하려면 그 정보를 일단 이해해야 하는데, 개인의 이해력, 인식 능력의 부족이나 기존의 지식과의 상충으로 인하여 새 정보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심리 상태가 표출되는 것이 ‘아니’이다(오승신 1995:104). 이런 점에서 놀람을 나타내는 위의 (33나, 다)의 ‘어머나, 앗’과는 다르다.

대체로 감탄사 ‘아니’ 뒤에는 의문문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다음 예를 통해 살펴보자.

(34) 가 : 저번에 자네가 부탁한 일 나는 못하겠네.
나 : 아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35) 가 : 어젯밤에 갑자기 돌아가셨대.
나 : 아니, 그 말이 사실이야?

위의 (34)와 (35)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아니’ 뒤에는 의문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 경우 '아니'는 독립적인 발화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다음과 같이 후행하는 발화가 없으면 어색해진다.

(34′) 가 : 저번에 자네가 부탁한 일 나는 못하겠네.
나 : *아니
(35′) 가 : 어젯밤에 갑자기 돌아가셨대.
나 : *아니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의 '아니'는 후행하는 발화에 종속되어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니'가 다른 발화에 연결되어 그 발화를 보조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와는 달리 놀람의 의미가 사라지고 선행 정보에 대한 이해불가의 심리 상태만이 그 의미로 나타난다. 오승신(1995:105~106)에 따르면 새로운 상황이나 정보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인간은 대개 질문행위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한다. 이해 불가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아니'가 의문문과 언제나 호응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정신작용의 추이를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즉 새로 접한 상황이나 정보내용을 자신의 정보세계 속에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아니'가 표출해 주면서 동시에 화자는 이러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상대에게 던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대화에서 감탄사 '아니'는 세 개의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자.

(36) (방문 앞에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엿듣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37) 가 : 국어 시험 범위가 더 늘어났대.
나 : 아니, 얼마나 늘어났어?
(38) 가 : 김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로 가신다구요?
나 : 아니, 내년에 가시는 거 아니었나요?

위의 (36)은 화자가 자기 앞에 벌어진 사태나 상황에 대해 이해의 불가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즉 화자가 기존의 지식이 없이 화자의 앞에 벌어진 상황에 대한 이해 불가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37)의 예는 화자가 접한 정보가 대화상대의 발화내용으로부터 얻은 정보인 경우이다. 자세히 말해서 새 정보에 대한 이해불가의 상태에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하는 질문으로 나타난다. (38)에서 '아니'는 화자의 발화내용 중에 제삼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에 대한 이해불가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니'는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정보를 납득할 수 없을 때,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이나, 반박하기 위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선행 정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해불가의 심리 상태를 예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쓰이는 단어라고 본다. 결국 이러한 '아니'는 의문문을 도입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화자가 하려는 질문이 화자가 접한 상황이나 선행 발화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들과 연관되는 것, 즉 이들에 대한 반응임을 보여, 담화의 연결 관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3.2.1.2. 명령 · 청유문 도입

남에게 어떤 행동을 권하거나 재촉할 때 하는 말, 그리고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남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하는 말로 감탄사 '자'가 있다. 이 감탄사 '자'는 명령문과 청유문과 관계가 있다.

먼저 '자'는 상대에게 어떤 물건을 주는 하나의 사회적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39) 가 : 거기 물 좀 줘.
　　나 : 자.
(40) 가 : 색연필 한번 빌려줘.

나 : 자.

위의 예에서 '자'는 자신이 주는 물건을 받으라는 뜻으로 나타난다. (39가)와 (40가)는 물과 색연필을 달라고 했고 (39나)와 (40나)는 승낙을 했으므로 '자'가 발화되기 전에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놓이게 되며, 이것은 청자와 화자가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 된다. 즉 이러한 관계가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인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가 발화된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발화가 뒤따르지 않아도 청자는 화자가 자신에게 어떤 물건을 주려고 한다는 뜻을 전달 받게 된다. 단, '자'를 발화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발화와 함께 어떤 것을 제시하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41) 가 : 나 100m 10초 나온다.
나 : 어디?
가 : 자, 시작해 봐.

(42) 가 : 예쁘지? 이 치마 너 어울릴 거 같아서 샀어.
나 : 입어볼게. 자, 어때? 어울려?

위의 (41), (42)에서 '자'는 화자가 제시하는 행동이나 광경을 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자'가 발화되는 상황은 화자와 청자가 보여주는 사람과 보임을 당하는 사람의 관계에 놓여 있고, 이러한 관계는 '자'라는 발화의 전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가 쓰이지 않는다.

한편, '자'가 독립적인 발화를 이루지 못하고, 보조적으로 쓰여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도입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자'는 언제나 화자가 제시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며, 그것을 제시하는 행위가 따라야 하지만, 발화 보조적 기능을 하는 '자'의 경우에 화자가 제시하는 것은 다음 발화에 나타나는 내용이 된다. '자'는 화자가 제시하는 발화 내용에 청자가 따라 줄 것을 바라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43) 자! 나를 따르라! 황토치에서 보여 준 귀신 힘으로 놈들을 쳐부수자!. ≪유현종, 들불≫

(44)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이 보이는 상황에서)
자, 자, 자, 좋게 생각 합시다.

(45) 자! 서두릅시다.

위의 대화에서 '자'는 화자가 제시하는 행동으로 청자를 끌어 들이려고 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3)에서는 화자가 제시하고 있는 행동의 주체가 청자가 되고 (44), (45)에서는 행동의 주체가 화자와 청자가 된다.

이와 같이 '자'는 화자가 원하는 어떤 행동으로 청자를 이끌려는 태도를 제시하고, 그 행동의 내용을 담은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도입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3.2.1.2. 감탄문 도입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정보에 대해 놀라움, 기쁨, 슬픔 등의 느낌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감탄사 뒤에 대개 감탄문이 따른다. 감탄사는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말의 부류 즉 품사의 하나인 데 반해, 감탄문은 그 화자의 느낌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제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통해 감탄문에서 실현되는 감탄사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46) 가. 아이고, 시원하다!
나. 와,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반가워!
다. 야, 이거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는데!
라. 아이고, 불쌍해서 어째.....
마. 아이, 신경질 나.

위의 (46)은 여러 상황에서 감탄사 뒤에 화자의 느낌을 표현하는 감탄문이 나타난다. 그런데 감탄문의 종결어미로서 인정받는 '구나', '네', '군' 등의 어미 외에 일반적인 서술형 어미들이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18] 즉 위의 (46)을 통해 감탄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감탄형 종결 어미보다는 감탄사가 어떤 사실에 대한 화자의 강한 느낌을 표현하는 감탄문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예들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47) 가. 어머, 예뻐라. 이거 진주잖아.
　　나. 예뻐라. 이거 진주잖아
(48) 가. 그럼, 내일 학교 안 가도 되네. 아이구, 신나라.
　　나. 그럼, 내일 학교 안 가도 되네. 신나라.
(49) 가. 아이구, 죽겠다.
　　나. 죽겠다.
(50) 가. 아이, 좋아.
　　나. 좋아.
(51) 가. 이게 무슨 꼴이냐. 아이구, 내 신세.
　　나. 이게 무슨 꼴이냐. 내 신세.
(52) 가. 아이구, 골치야.
　　나. 골치야.

위의 예에서 (47), (48)과 같이 감탄형 어미 '-아라'로 끝나는 문장의 경우에는 감탄사를 꼭 필요로 한다. 위의 (49)는 감탄사가 서술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의 앞에 놓인다. (51)과 (52)는 감탄사가 독립되어 발화되는 한 단어에 연결되어 단어가 지시하는 내용에 대한 감탄적인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즉 (47)~(52)의 '가'는 감탄사가 선행되어 감탄문이라는 구성을 갖는다. 그러나 (47)~(52)의 '나'의 예들은 감탄사 없이 문장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앞서 말했듯이 서술형 어미로 끝나는

18) 노대규(1983:25~26)에 따르면 한 문장의 용언의 어간이나 비종결 어미 뒤에 서술법 문장 종결 접미 형태가 첨가되고, 그 위에 감탄적 음조가 얹힌 문장들을 의사 감탄문이라 규정하고 있다.

문장의 경우는 감탄사가 없으므로 단순한 서술문이 되어 버린다. 명사구만으로 이루어진 발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탄사가 없이는 감탄적인 느낌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감탄사는 감탄문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2.2. 발화 태도 표시 기능

화자의 발화태도를 표시하는 감탄사의 기능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수식하는 양태적 수식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선행 정보에 대한 태도를 표시하는 기능이다. 일상 담화를 예로 들어 기능에 따른 감탄사의 다양한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자.

3.2.2.1. 양태적 수식 기능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수식하는 감탄사의 양태적 기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양태적 기능을 하는 감탄사는 앞에 3.1에서 살펴본 문장 도입 기능을 하는 감탄사와 다르게 발화상의 위치가 유동적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감탄사 중에서 '글쎄'와 '뭐'의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 양태적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19]

먼저 '글쎄'는 여러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쓰인다. 기본적으로 '글쎄'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승낙 또는 거절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사용된다.

---

19) 이 장에서 쓰인 예문은 SBS 드라마 '파리의 연인', MBC 드라마 '욕망의 불꽃'의 대본을 참고하였다. 어법에 맞지 않은 띄어쓰기는 필자가 수정하고, 모든 대본들을 보기 편하게 재정렬하였다. 그러나 일상 담화를 담고자 하는 목적으로 드라마 대본을 예문으로 사용하였기에 대화에서 드러나는 잘못된 표현은 구어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수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뻐하니까'는 '예뻐 하니까'가 바른 표현이 된다.

(53) 가 : 너 내일 학교에 올 거니?
나 : 글쎄(요).

(54) 가 : 나 돈 좀 10만원만 꿔 줘라.
나 : 글쎄(요).[20]

위의 (53나)와 (54나)의 예에서 사용된 '글쎄'는 상대의 질문이나 요청에 대해 승낙과 거절을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망설임은 '글쎄' 뒤에 후행하는 발화에 의해 뒷받침된다.

(53′) 가 : 너 내일 학교에 올 거니?
나 : 글쎄(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가야지.

(54′) 가 : 나 돈 좀 10만원만 꿔 줘라.
나 : 글쎄(요). 나도 이번 달에는 완전 적자야.

위의 예는 '글쎄' 뒤에 후행하는 발화를 통해 모호해 졌던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53′)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가야지.'라는 발화를 통해 긍정의 의미를 드러냈고, (54′)는 '나도 이번 달에 적자'라는 후행 발화를 통해 지금 나에게 빌려줄 돈의 여유가 없음을 나타낸다. 즉 이처럼 후행발화를 통해 모호해 졌던 '글쎄'의 의미가 뒷받침된다. 이와 달리 '글쎄'는 화자의 태도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이때 '글쎄'가 갖는 의미를 알아보자.

(55) <욕망의 불꽃 41회>

차순자 : 아버님이 민잴 얼마나 애끼는데 그 말 많은 여배우하고 결혼을 시키겠어요.
영대 : 그러니까 아버님이 영민이 처를 물 먹이는 거 아니냐구.
차순자 : (눈만 꿈벅이는)

20) 예문 (53)과 (54)는 이원표(1993:153) 예문을 참고하였다.

영대 : 이 사람 참 머리가 안 돌아가네.

차순자 : 글쎄 말두 안 되는 소리마세요.

영대 : 아이구 답답해. (가슴 치며) 아버지가 백인길 손주며느리로 삼겠다고 하면 영민이 처 입장이 어떻게 되겠냐구. 아버지가 민잴 버리겠다는 뜻인데.

차순자 : 그게 어떻게 그 뜻이우. 아버님이 민잴 너무 이뻐하니까 민재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지.

위의 예에서 쓰이는 '글쎄'는 차순자가 전에 말했던 것을 상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차순자가 이미 영대에게 자기의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영대가 이해하지 못 한다고 느꼈을 때, 차순자 자신의 의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다.

여기서 '글쎄'는 자신이 전에 언급한 바 있는 정보 내용을 상기하고 있음을 전달하여, 청자로 하여금 화자가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음을 인식시키려는 태도를 표명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즉 여기서 '글쎄'는 재강조의 태도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오승신 1995:113~114).

이제 기본적인 의미로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뭐'의 양태적 수식 기능을 살펴보자. 먼저 '뭐'는 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서 응하는 발화에 연결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56) <파리의 연인 8회>

양미 : (태영을 억지로 앉히며)아이..모야~혼자서 궁상맞게 어떻게 먹으라고..다 먹을 때까지 앉아 있어~

태영 : 나 그럴 기운 없어..있다 집에서 보자..(일어난다)

양미 : 수혁이 오빠 나간 거 때문에 그래?

태영 : (가다말고 돌아보고 표정)언제까지 같이 있을 껏도 아니었는데 뭐..

양미 : 그래도..챙길건 다~챙기고 나가더라..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뭐'는 양미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태영의 발화에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또 다른 특징으로 '뭐'는 문장 앞이나

뒤 어느 곳에 쓰여도 어색하지 않다.

(56′) <파리의 연인 8회>

양미 : (태영을 억지로 앉히며)아이..모야~혼자서 궁상맞게 어떻게 먹으라고..다 먹을 때까지 앉아 있어~
태영 : 나 그럴 기운 없어..있다 집에서 보자..(일어난다)
양미 : 수혁이 오빠 나간 거 때문에 그래?
태영 : (가다말고 돌아보고 표정) 뭐.. 언제까지 같이 있을 껏도 아니었는데
양미 : 그래도..챙길건 다~챙기고 나가더라..

즉 이는 문장에 나타나는 발화태도를 직접 수식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뭐'는 위의 (5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결어미 '-는데'와 '-지'와 호응하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종결어미 '-지'와 호응하여 쓰이는 경우, 장경희(1985)에서는 '-지'의 양태적 의미를 '이미 앎'이라 보았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태도는 단정적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발화 내용이 전달하는 정보 외의 다른 가능한 정보를 부정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뭐'와 유사성을 가지므로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57) <욕망의 불꽃 13회>

차순자 : 내려가 있어. 동서가 울산 내려가 있는 동안은 아버님 내가 모시면 되지 뭐.
나영 : (부엌에서) 울산 별장에도 일하는 사람 있어요.
강금화 : 마누라만 하겠니? 일하는 사람이.
차순자 : 어머니 내가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면서 살림 거들게요.
강금화 : 당분간 회장님, 아침 모임 취소하시겠단다. 늙은이 둘이 사는데 수선은.

위의 (57)에서 알 수 있듯이 차순자가 '-지'의 쓰임으로 아버님을 내가 모시겠다는 단정적인 태도의 발화 뒤에 다른 가능한 정보를 부정하는 태도의 '뭐'가 수식하

여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즉, '-지'와 '뭐'의 유사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뭐'는 상대의 요청에 대해 수락을 함으로써 다른 것을 포기하는 발화태도를 나타낸다. 다음 예를 보자.

(58) <욕망의 불꽃 42회>

진숙 : 정말 헐리우드에서 프로듀서가 온 거예요?
장윤식 : 인기만 오케이하면 당장 헐리우드로 데리고 가겠대.
현필 : 우와. (감탄사)
장윤식 : 내일 시간 내서 만나보자, 인기야. 윤나영 씨가 제작비 내준대니까 어려운 일 없을 거야.
인기 : 그러죠, 뭐.

위의 (58)에서 인기는 자신을 버린 친엄마인 윤나영의 도움으로 소속사 사람들의 헐리우드 데뷔 요청에 대해 수락을 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도 포기하게 된다. 이때 '뭐'가 쓰임으로써 결정에 대한 민기의 단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상으로 살펴 본 '뭐'는 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서 응하는 발화에 연결되어 단정적 발화태도를 보여주는 양태적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3.2.2.2. 선행 정보에 대한 태도 표시 기능

선행 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주로 긍정의 의미인 '네', 부정의 의미로 '아니', 마지막으로 선행정보에 대한 재고의 의미로 '글쎄'가 있다[21].

21) 이 장에서 예는 SBS '파리의 연인', '인생은 아름다워', '대물'과 KBS '수상한 삼형제', 그리고 MBC '개인의 취향'의 대본을 참고 하였다. 어법에 맞지 않은 띄어쓰기는 필자가 수정하고, 모든 대본들을 보

먼저 '네'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자. 주로 긍정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네'는 다양한 화행의 응답이라는 독립적인 의사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외에도 선행 발화에 대한 긍정의 태도를 보이는 기능을 한다.

(59) <파리의 연인 18회>

태영 : 일은 잘 해결됐어요? 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다 있지? 왜 그랬데요?
기주 : 잡아서 아주 다 죽어주자.
태영 : 오케이. 그래야죠. 그 사람들 한 사장 손에 다 죽겠다, 그냥. (하며 주먹을 불끈 쥐어 올린다.)
기주 : 난 오늘부터 비상이야. 늦게 들어간다.
태영 : 예, 저도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게요.
기주 :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올려줘야 되잖아. 그건 안 되고.(하며 웃어준다.) 알았지? 이따 봐. 갈게 (하며 태영의 어깨를 툭 쳐준다.)
태영 : (그런 기주의 뒷모습을 보며 안정을 찾으려 한다.)

(60) <수상한 삼형제 60회>

과자 : 오늘이 어버이 날이라네요.
순경 : 누구, 왔다갔어?
과자 : 예.
순경 : (뭔가) 혼수 에미 왔었어?
과자 : (일부러 툭툭) 예. 지가 생각해도 너무했는지 왔다가데요. 보쌈도 싸왔던데 좀 드실래요?
순경 : 밤늦게 뭐. 낼 먹지. (옷 걸고 앉으며 슬쩍) 혼수 에미 찾아오니 기본 좋았어?
과자 :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냥...나쁘지는 않대요.

기 편하게 재 정렬하였다. 그러나 일상 담화를 담고자 하는 목적으로 드라마 대본을 예문으로 사용하였기에 대화에서 드러나는 잘못된 표현은 구어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수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나오냐고'는 '나오느냐고'가 바른 표현이 된다.

위의 (59)는 ‘네’의 변이형으로 ‘예’가 쓰이면서 상대의 정보에 대한 긍정의 태도를 표시하고 자신의 발화로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상대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써 독립적인 의사전달의 쓰임이 아니라 후행하는 발화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60)의 예에서는 선행발화가 진술일 경우뿐 아니라 질문이 될 경우이다. 이 경우 상대의 질문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다. 이러한 ‘네’의 쓰임은 대화를 원만하게 이어가려는 화자의 의도를 작게나마 나타내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선행발화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는 ‘아니’에 대해 살펴보자. ‘아니’는 선행 정보에 대한 ‘이해불가’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 외에도 다양한 보조적 기능이 나타난다.

(61) <개인의 취향 16회>

개인 : (뺨을 때리는)
나한테 넌 가족이었어. 나랑 같이 사는 동안은 너도 그랬잖아? 창렬씨 때문에 우리 사이가 깨지기 전까진.
인희 : <u>아니</u>, 난 너희 집에 얹혀살기 위해 가족인척 했던 것뿐이야.
개인 : 나쁜 년...가족인 척 했다구?
인희 : (비웃는) 그래, 그랬어. 네가 얄미워 죽을 거 같았지만, 얹혀살려면 할 수 없잖아?

위의 (61)은 선행 발화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에 앞서 ‘아니’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아니’의 뒤에 오는 발화를 통해 ‘아니’는 그 자체만으로 선행발화 내용에 반박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고, 단지 후행하는 발화를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아니’는 상대의 행동을 만류하는 발화 앞에서 쓰이기도 한다. 다음의 대화를 통해 살펴보자.

(62) <인생은 아름다워 11회>

병태 : 어디 외출 나가실 데 있어요?
시부 : ??
병태 : 병걸이 별일 없는 거 같던데 모셔다 드리라구.
시부 : 멍텅헌 것 니 어멍한테 차 타구 가냐?
병태 : (입 벌리고)....(보며)
시부 : (물 집어 입 헹궈서 국그릇에 도로 뱉어내고)가자..(단장 챙기는)
병태 : 아니 저 아버지 아침은 드시구..점심 때까지 배고프세요..조금이라두 드세요.
시부 : 안 고퍼..(나가는)

위의 (62)의 예에서 병태는 아침식사를 드시지 않고 외출하시는 아버지께 식사를 하고 외출하셔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아니'는 아들이 아버지를 만류하는 부정적 태도를 미리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선행 발화에 대한 부정의 태도를 표시함으로써 후행하는 발화를 보조하는 기능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선행 발화에 대한 재고의 의미로 '글쎄'에 대해 알아보자. 직관적으로 '글쎄'는 발화문의 맨 앞에서, 또는 단독으로 사용되어 상대방의 말에 대한 화자의 망설임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상대방이 어떤 것을 묻거나 요청하는 상황에서, 곧 이어지는 '글쎄'의 상용은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승낙 또는 거절을 하는데 있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원표 1993:153).

(63) 가 : 내일 주말인데 시간 있어요?
나 : 글쎄요. 제가 연락 할게요.

위의 (63)은 데이트 신청을 하는 남자의 질문에 여자의 응답으로 '글쎄'가 쓰였다. 이것은 여자가 승낙을 해야 할지에 대해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22].

22) 이와 같은 경우를 남기심・고영근(1993:176)은 '의혹의 대답'으로 부르고 있다.

더하여 이 남자가 여자 마음에 확 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상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때 상대의 발화내용에 대해 생각중임을 드러낸다. 이와 달리 다음의 대화에 쓰인 '글쎄'는 선행 발화 내용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

(64) <대물 3회>

차강철 : 이 사람도 싫다, 저 사람도 싫다. 도대체 누굴 뽑겠다는 겁니까?
강현석 : 좀 더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을 찾아봐야죠!~
차강철 : 아 글쎄..그런 인물이 미쳤다고 1년짜리 보궐선거에 나오냐고?
1년 기다렸다 4년짜리 총선에 나오지!

위의 (64)의 예에서 쓰인 '글쎄'는 선행 발화내용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후행 발화는 선행 발화에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글쎄'는 선행 정보에 대한 직선적 대답을 회피하면서 대화상의 마찰을 줄이고, 원만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3.2.3. 담화표지로서의 기능

우리의 일상적인 담화상황에서 감탄사는 발화의 정보 내용에 대한 태도와는 관계없이 사용되는 것들이 있다. 즉, 품사로서 독립적인 성격의 감탄사는 담화상에서 사용되었을 때 포괄적으로는 문장의 연결기능부터, 구체적으로는 앞 문장이나 이어지는 문장에 대한 화자의 태도 등을 표현하는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때 하나의 감탄사가 여러 유형으로 표시되는데, 이것은 담화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이 절에서는 대화상에서 담화표지로서의 감탄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23)]

3.2.3.1. 대화 시작 표시

담화상 시작 표시 기능을 지닌 감탄사는 화자가 상대방에게 대화를 함께 하고 싶다는 의도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즉 이러한 기능을 지닌 감탄사는 발화의 첫 머리에 나타나서 화자가 상대방에게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는 담화 책략으로 사용되면서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시작 표시의 감탄사로는 '저', '저기'가 쓰인다. 다음의 대화를 보도록 하자.

(65) <파리의 연인 1회>

-식사중

-중략-

부인 : 강릉 참 좋지요. 태영씨 보니깐 나 여고생 때 생각나네. 왜 학교 다닐 때 교복에 깃을 빳빳하게 다리고 그 뭐지?

왼쪽에 ..왼쪽에 목련꽃이 박힌 뱃지를 달고

태영 : 저기..혹시 강릉여고 나오셨어요?

부인 :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태영 : 저도 강릉여고 나왔어요. 선배님! 왜 왼쪽 가슴에 목련꽃 뱃찌 달고요. 월요일 아침 조회시간에 맨날 검사 했잖아요

부인 : 맞아요. 맞아요. 그거 없으면 교련 점수 깍이고, 다른 반 친구한테 막 빌리러가고

태영 : 예예. 맞아요.

부인 : 그 뱃지 참 오랫동안 간직했었는데 잃어버려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난 그때가 정말 좋았거든요.

위의 예에서 부인과 태영의 이야기의 화제로 강릉이 거론되다가 우연히 부인의

23) 담화표지와 관련된 예문은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KBS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신데렐라 언니', SBS 드라마 '파리의 연인', '인생은 아름다워'의 대본을 통해 상황· 맥락에 따른 감탄사의 다양한 보조적 기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어법에 맞지 않은 띄어쓰기는 필자가 수정하고, 모든 대본들을 보기 편하게 재 정렬하였다. 그러나 일상 담화를 담고자 하는 목적으로 드라마 대본을 예문으로 사용하였기에 대화에서 드러나는 잘못된 표현은 구어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수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포기하냐고'는 '포기하느냐고'가 바른 표현이 된다.

강릉여고 시절 이야기를 듣고 태영이 조심스럽게 강릉여고임을 물어보게 된다. 즉 이 대화에서 사용된 태영의 '저기'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바로 꺼내지 않고 '저기'를 사용하여 대화를 조심스럽게 알리고 있다. 이는 상태로 하여금 자신의 발화내용을 들을 준비를 갖출 시간적 여유를 주어, 바로 용건을 말하는 데에서 오는 부담감을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3.2.3.2. 주의집중 표시

주의집중을 표시하는 감탄사는 청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고 화자가 자신의 말에 집중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원표(2001)에서는 이러한 주의집중 기능의 담화표지를 일종의 '관심유도장치'로 보고 있는데, 화자는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기에 앞서 이러한 장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다. 주의집중을 표시하는 감탄사로 '자'가 쓰인다.

(66) <수상한 삼형제 59회>

마탄 : 팀장님은요?
이상 : 난 심플하게 (탁 내놓며) 권총, 수갑.
치장 : 역시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말이야. 팀장님 존경합니다. 다 집어넣 집어넣. (일동 우루루 쓸듯이 집어넣고)
이상 : 자, 그럼 낼 새벽 4시 기상입니다. 늦지 않게 준비하십시오.
태백 : (들어서며 라면가득 안고) 그래도 라면은 끓여먹고 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동 : (박수) 와후.
사중 : 역시 검사님 멋재이.

위의 예는 형사들이 마약범을 잡기 위해 각자 만발의 준비를 했다고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내일 계획의 첫 순서인 기상시간을 이야기 하면서, 4시까지 모두가 늦지 않고자 하는 의도로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자'가 사용되었다. 즉 자신의 발화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3.2.3.3. 상대 부름 보조 표시

상대 부름 보조 표시는 부름 행위를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즉, 우리가 상대의 이름이나 호칭을 부르는 말의 앞에 쓰인다. 보통 유사성을 가진 두 종류의 단어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부르고자 하는 상대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곳에 있어서 단순히 상대의 이름이나 호칭만으로는 부정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대 부름 표시를 가지는 감탄사로는 '여보세요, 이봐, 야, 어이' 가 쓰인다.

(67) <신데렐라 언니 2회>

어른들, 모두 이 모양을 보고 입을 쩍 벌린다.
어른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조에게 꽂힌다.

은조 : .....
효선 : (그런 은조를 보고, 재당숙모할머니를 보고, 그 앞에 앉아있는 강숙을 본다)
기훈 : (은조를 본다) .....
어른들 : (한꺼번에 와글와글) 그럼, 아이 인사도 받아야지 / 얘 올라오련(은조에게) / 이보게, 좋은 날인데 무슴슴한 소릴랑 그만 두게(재당숙모에게) / <u>어이 조카,</u> 우두망찰 서 있지 말고 여식아이를 들이게(대성에게)/ 등등...
효선 : (은조의 팔을 끼며) 언니, 인사드려야지, (하고 댓돌 위로 한 칸 올라가는데)

위의 (67)에서 강숙과 대성이 재혼을 하여 대성의 가족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른들은 대성에게 강숙의 자식인 은조를 소개해 달라고 하고 있다. 지금 이 장소에는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대성의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 있고, 어른들은 대성을 부르는 호칭에 더 정확성을 주기 위해 '조카'라는 호칭 앞에 '어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어이'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68) 가 : 여보게, 김사장!
나 : 야, 현주야!
다 : 얘, 꼬마야!
라 : 이봐, 총각!

그런데 여기에서 호칭과 감탄사 '여보게, 야, 이봐, 어이'등은 유동적이지 않다. 순서를 반대로 해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68′) 가 : 김 사장! 여보게.
나 : 현주야! 야.
다 : 꼬마야! 얘.
라 : 총각! 이봐.

그러나 위의 (68′)의 예가 사용된다면 청자가 대답이 없을 경우, 다시 부르게 되는 경우에 쓰일 수 있겠다. 상대 보조 부름 표시는 부름행위에 있어서 중심적인 요소가 되는 단어는 후행하는 상대의 이름이나 호칭이 되지만 상대의 이름이나 호칭만을 부를 경우, 뒤에 오는 문장 상의 단어와 구분이 안 지어져 부름 행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이봐'와 같은 부름말을 발화함으로써 뒤따르는 이름이나 호칭어가 부름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전달 할 수 있게 되므로 부름이라는 의사소통 행위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책략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오승신1995:135).

즉 여기서 ‘여보세요, 이봐, 야, 어이’등은 부름행위로서의 기능을 정확하게 행하도록 상대 부름 보조 표시의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3.2.3.4. 발화 수정 표시

발화 내용을 수정 하는 경우는 발화 중 말이 잘못 나왔을 때 이를 수정하기 위해 쓰인다. 즉 자신의 발화에 나타난 오류를 최소화 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힘을 싣기 위한 의도로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발화 수정 표시의 감탄사로는 ‘아’, ‘어’, ‘저’, ‘저기’, ‘아니’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상대화에서 자주 쓰이는 ‘아니’의 쓰임만을 살펴보겠다.

(69) <인생은 아름다워 11회>

병태 : 제발 그렇게 무섭게좀 그러지 마세요. 어머닌 왜 그렇게 무서우세요. 그러니 아버지가 딴 생각을 하실 수 밖에요.
시모 : ??
병태 : <u>아니</u> 물론 어머니가 처음부터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아버지 때문에 무서워지셨을수두 있지만
시모 : 나가라(오버랩의 기분)
병태 : ...(보며)
시모 : 나가라구.

위의 (69)는 병태가 화를 내시는 어머니께 화를 좀 내시지 말라는 말과 함께 더 화가 나신 어머니의 무서운 표정을 보고 자기의 발화가 잘못되었음을 파악하고 자신의 발화를 수정하기 위해 ‘아니’를 사용 하였다. 즉 ‘아니’는 앞서 살펴본 부정적인 응답표시로서가 아닌, 잘못 발언된 말을 수정하려는 의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발화의 진행을 보조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3.2.3.5. 화제 전환 표시

담화상에서 기존의 화제에서 새로운 화제로 전환을 하는데 사용되는 감탄사가 있다. 김영철(2008:17)에서는 이러한 화제 전화의 담화표지가 화자가 주도적인 위치나 입장에서 담화를 진행하면서 담화의 내용이 바뀐다는 사실을 청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화제 전환의 담화표지로 '어', '아', '자', '에'가 쓰인다. 여기서 우리는 '어'와 '자'의 구체적인 대화의 예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70) <지붕 뚫고 하이킥 2회>

이른 아침. 고속도로를 달리는 염소트럭. 염소들 사이에 세경 신애 앉아있다. 세경, 어두운 표정으로 달호가 던진 양말 속의 돈을 꺼내본다.

신애 : (좀 걱정스런)언니, 아빠 금방 오는 거 맞지?

세경 : (표정. 애써 밝게)응. 금방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신애 : (끄덕끄덕)

세경 : 근데 너 서울 가면 자동차며 사람이며 엄청 많은 거 알지? 책에서 봤지? 길 안 잃어버릴려면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 알았지?

신애 : 어. 근데 언니 자장면 말이야. 우리 서울 가자마자 먹는 거야? 아빠 기다렸다 먹는 거야?

세경 : 기다리다가 아빠 빨리 안 오면 우리 둘이 먼저 먹자.

신애 : (금방 좋아 활짝 웃으며)그래~~

둘을 태운 트럭이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위의 (70)에서 '어'는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어'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화제로 전환되고 있다. 세경이 서울 가서 조심해야할 일을 당부하는 도중 신애는 자장면으로 이야기의 화제를 돌리며 '~데 말이야'를 첨가하여 새로운 화제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시킴으로써 새로운 정보나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즉 청자의 주

의를 끌면서 새로운 정보에 대하여 화제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담긴 언어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71) <파리의 연인 10회>

분식집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 순대를 사먹은 기주태영. 기주의 한손에는 태영의 손 한손에는 돼지 저금통이 있다.
기주 : 맛있었습니다. [태영에게 저금통을 내밀자 동전을 넣는 태영.] 땡큐~
태영 : 자. 이제 돼지 저금통에 동전 모아봤고 또 떡볶이 순대 사먹어 봤는데. 또 뭐할 건데요?
기주 : 아~ 이건 솔직히 너무 어렵다. 추억을 한번 만들어보지 뭐. 내 그림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좀 보고. 누구 앞에서 마음 놓고 울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울 일 생기면 마음 놓고 울지 뭐. 이렇게. (태영의 어깨에 기대 안겨서는)엉엉엉~
태영 : (놀라서 기주를 밀어내는) 어, 왜 이래요? 어머.

위의 (71)는 '자'를 통해 화자가 주도적인 위치나 입장에서 담화를 진행하면서 담화의 내용이 바뀐다는 사실을 청자에게 알리는 표시를 한다. 즉, 태영의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자' 다음 후행되는 발화에서 화제가 전환됨을 정확히 알 수 있다.

3.2.3.6. 발언권 유지 표시

발언권 유지 표시는 화자가 상황과 의도에 적합한 후행 발화가 언뜻 생각나지 않을 때 자신의 발언권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한 채 적합한 발화를 생각해 낸 의도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발언권 유지 표시는 '에', '뭐', '어', '저', '저기', '아', '자'가 쓰인다.

오승신(1995:145)에 따르면 위의 감탄사들은 기본적으로 화자가 무슨 말인가를

생각해내려 하고 있는 사고 작용을 표출하는 소리이다. 그런데 이들은 표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소리가 아니라 발화행위의 수행에서 생기는 장애, 즉 다음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나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화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소리인데, 즉 다음 말을 계획하고 있음을 표출함과 동시에 화자의 정신세계 속에서 위치하고 있는 정보내용을 지시하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72) <파리의 연인 11회>

#태영이 교육중 문윤아를 만나다.

윤아 : 재주 좋다. 밥줄 떨어지게 무섭게 취직하나 빠른데.

태영 : 너 나한테 위치추적장치 그런 거 심었니? 어~ 정말 귀신같다.

윤아 : 착각하지 마. 나 오늘 일하러 왔어. 니가 쓰던 영화칼럼 쓰거든.

태영 : 그래, 니 수준에 맞는 영화가 있을지나 모르겠다. 어~ 개인적으로는 저걸 추천할께. 보고 나면 동심이 생기거든. 순수한 마음 너한테 다분히 필요한 마음이지 .

윤아 : 너한테도 필요하지 남의 남자 가로채는 여자가 순수하다고는 할 순 없잖니.

태영 : 가로채? 표현이 영 거시기 하다. 너 응?

(73) < 파리의 연인 11회>

수혁 : 나 보고 싶었구나 이제 자주 올게요. 태영이도 있으니깐. 뭐 도와줄 것 없어?

양미 : 있어요.

태영 : 없어(동시에)

양미 : (수혁이 사진 찍는다) 그냥 한 장 갖고 싶어서 성능시험도 해 볼겸 나 복도 청소하고 있을게 말씀 나누다 가세요. 음~ 아~ 웃어 주지나 말지 싹 접었다가도 그렇게 웃으면 어떻게 포기하냐고 어휴 증말.

위의 (72)는 윤아의 얄미운 소리에 태영이가 비아냥거리듯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 '어'는 윤아를 약을 올리기에 좋은 표현을 생각하기위해 발언권 유지를 표시해주며, 윤아의 약을 올리기 위한 의도를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만찬가지로 (73)역시 양미는 관심 있는 수혁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음'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발언권을 유지하고 있다.

3.2.3.7. 얼버무림

얼버무림은 대화중 화자가 피하고 싶은 화제를 서둘러 마무리 짓고 싶거나, 상대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피하고 싶을 때 사용된다. 일상 대화에서의 얼버무림의 예로는 '뭐', '어, 음'이 쓰인다. 이중 '뭐'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74) <인생은 아름다워 15회>

S# 현관 밖
연주 : (나오는)
호섭 : (기다리고 있는)...
연주 :(주차장으로 움직이며)내일 쉬라 그러시네요..
호섭 : 아아...쉬는 날은 뭐해요?
연주 : 그냥 <u>뭐...</u>할머니 괜찮으신 때는 늦게까지 열시 열한시 까지 자고 할머니랑 목욕두 가구 시장도 가구...책두 보고 ...

(75) <지붕 뚫고 하이킥 118회 >

세경 : controlling the temperature면 에어컨 아니에요?
준혁 : 컨트롤..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
세경 : 다시 듣다 보니까 마지막엔 to make the air inside cooler 라고 하는 거 맞아요?

준혁 : 아..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세경 : 그럼 air conditioner 맞죠?
준혁 : 네..뭐.. 그러고 보니까.. 에어컨 맞는 거 같은데..
세경 : 하.. 이제 알겠다. 고마워요.
준혁 : (무안한) 아.. 네. 뭐..

위의 (74)의 예에서는 연주를 짝사랑하는 호섭이 연주에게 주말에 데이트를 하자는 말을 자신의 마음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돌려 말하고 있다. 호섭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연주는 계속되는 호섭의 질문에 난감해하며 질문에 대한 답을 '뭐'를 사용함으로써 대답을 얼버무리고 있다. 또 (75)의 예는 세경의 질문에 몰라서 당황하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알지 못하는 부끄러움에 화제를 급히 마무리 짓고 싶어서 얼버무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뭐'는 모두 대화상에서 발화 진행의 보조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3.8. 대화 마무리 표시

대화를 마무리하고자 할 때 마무리 짓기에 앞서 자신의 의도를 미리 표시함으로써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화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청자에 대한 화자의 배려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주로 대화에서 마무리 표시는 '어', '뭐', '저', '저기', '네', '그래요'가 쓰인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자.

(77) <파리의 연인 15회>

#약혼식장 밖. 약혼 여행 떠나는 기주와 태영을 배웅하는 승준, 양미, 건이
양미 : 와~ 이쁘다. 나중에 약혼식 때..
태영,기주 : ㅎㅎㅎㅎㅎ

기혜 : (천천히 로비에서 걸어나온다.)

태영 : (기혜에게 인사하며)저, 고맙습니다. 저희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혜 : 갔다 와서 아버지께 인사드리는 거 잊지마.

기주 : 그래... 근데 수혁이가 안 보이네?

기혜 : 뭐.. 아직 안에 있겠지. 가는 거 끝까지 못 봐주겠다. 먼저 갈께. (그냥 가 버린다.)

위의 (77)은 집안의 반대와 태영을 사랑한 조카 수혁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약혼식을 올린 후, 약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상처 받았을 수혁을 생각하며 누나인 기혜에게 수혁을 찾지만 그런 기주의 말에 기혜는 대화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 의도를 '뭐'를 통해 드러낸다. 기혜는 기주의 질문에 대답은 하고 있지만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78) <지붕뚫고 하이킥 118회>

정음 : (전화 받으며 편의점 앞 턱에 앉는다. 너무 오바되게 밝지 않게)
와~ 애인이다. (발이 아픈지 구두를 벗는)

지훈 : 뭐해요?

정음 : 놀아요. 왜요?

지훈 : 뭐하고 놀아요?

정음 : (웃으며) 그냥 이것저것.

지훈 : 저녁에 일루 올래요?

정음 : 네~ 알겠슴당~ 콜 온 거 같은데 빨리 가봐요. 네. (끊고는 지훈이 사준 구두를 물끄러미 보며 표정)

위의 (78)의 대화는 전화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인데, 마지막의 정음의 '네'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지훈의 질문에 대한 답이고, 다른 하나는 대화를 마무리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는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네' 다음으로 오는 후행 발화에서 알 수 있다. 의사인 지훈의

콜 소리를 정음은 전화로 듣고 급히 대화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 '네'가 사용된 것이다. 화자는 진행되어 왔던 대화 내용 전체에 대한 인식을 표시하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마감하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진행의 보조적인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담화진행의 기능을 가지는 감탄사의 실현 양상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 감탄사의 담화 진행 기능의 실현 양상

담화진행기능	감탄사의 유형	화용 의미
대화 시작 표시	저, 저기	상대에게 대화 참여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
주의집중 표시	자	청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고,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것.
상대 부름 보조 표시	여보세요, 이봐, 야, 어이	상대의 호칭이나 이름을 정확히 부르기 위해 보조적으로 쓰이는 것.
발화 수정 표시	아니, 아, 어 , 저, 저기	발화에 나타난 오류를 최소화하기.
화제 전환 표시	어, 아, 자, 에	대화의 주제가 바뀐다는 사실을 청자에게 예고하는 것.
발언권 유지 표시	에, 뭐, 어, 저,, 저기, 아, 자	대화를 계속 주도하려 하거나, 상황에 적합한 후행 발화가 생각나지 않을 때 자기의 발언을 유지하기 위한 것.
얼버무림	에, 뭐, 음	대화의 화제를 서둘러 마무리 짓거나, 상대방 질문에 대해 대답을 피하기 위한 것.

대화마무리 표시	어, 뭐, 저, 저기, 네, 그래요	상대에게 대화 종료 예고하기 위한 것.

Ⅳ.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어 감탄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차원, 곧 문장론 위주의 문법연구 자료를 토대로 감탄사의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고, 담화문법 차원에서 감탄사의 기능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기존의 논의된 자료를 통해 감탄사의 특징을 정의와 통사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감탄사의 유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감탄사는 기능면에서 다른 언어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형태적으로 불변하는 문법적 성질을 가지며, 화자의 내면 상태나 정신 작용을 표출하거나 화자의 뜻을 전달하는 데에 상황 의존적으로 쓰이는 단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감탄사는 구어적이고 독립적이며 후행 발화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는 통사적 특성이 있었다. 이러한 감탄사는 '감정적 감탄사, 의지적 감탄사, 전달적 감탄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감탄사의 기능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탄사의 기능을 크게 독립적 발화 구성 기능과 발화를 보조하는 기능으로 나누었다. 독립적 발화 구성 기능은 감탄사의 유형에 따라 감정적 감탄사, 의지적 감탄사, 전달적 감탄사의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리고 발화 보조 기능으로는 문장 유형을 도입하는 기능, 화자의 발화 태도를 표시하는 기능, 또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 감탄사의 유형에 따른 독립적 발화 구성 기능은 대화상에서 감탄사의 특수한 쓰임이 후행하는 발화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발화를 구성하였다. 발화 보조적 기능에서 먼저 문장 도입부 기능은 의문문의 경우 '아니'는 화자가 접한 정보에 대한 '이해 불가'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며 의문문을 도입하는 기능을 수행 하였다. 명령·청유문의 경우 '자'는 화자가 제시하려는 행동으로 청자를 이끌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감탄문의 경우 감탄사 뒤에 화자의 느낌을 표현하는 감탄문이 나타났고 감탄문의 종결어미로서 인정받는 어미 외에 일반적인 서술형 어미들이 많이 쓰였다.

발화 태도 표시 기능은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수식하는 양태적 수식 기능과

선행정보에 대한 태도를 표시하는 기능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먼저 양태적 수식 기능은 '글쎄'와 '뭐'를 통해 살펴보았다. '글쎄'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사용되었다. 그러나 후행발화를 수식함으로써 모호해 졌던 '글쎄'는 재강조의 태도를 수식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의미가 명확해짐을 알 수 있었다. '뭐'는 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서 응하는 발화에 연결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글쎄'와 '뭐'는 발화 상에서의 위치가 유동적이라는 특징을 가졌다.

다음으로 선행정보에 대한 태도 기능을 하는 '네', '아니', '글쎄'에서 보통 '네'는 선행 정보에 대한 긍정의 태도, '아니'는 선행 정보에 대한 부정의 태도, '글쎄'는 회의적인 태도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 하였다.

마지막으로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대화 시작 표시로 '저', '저기'는 대화를 조심스럽게 알리고, 자신의 발화내용을 들을 준비를 갖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은 바로 용건을 말하는 데에서 오는 부담감을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주의집중의 표시의 예로 '자'는 자신의 발화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상대 부름 표시로는 '여보세요, 이봐, 야, 어이'를 통해 부름 행위를 보조하는 기능을 하였다. 발화 수정 표시로는 응답표시로서가 아닌 잘못 발언된 말을 수정하려는 의도로 '아니'가 표시되었다. 화제 전환 표시로는 청자의 주의를 끌면서 새로운 정보에 대하여 화제를 전환시키고자 '어'와 '자'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발언권 유지 표시는 화자가 상황과 의도에 적합한 후행 발화가 언뜻 생각나지 않을 때 자신의 발언권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한 채 적합한 발화를 생각해기 위해 '어', '아', '음', 을 예로 들어 살펴보았다. 얼버무림은 '뭐', '어', '음'을 통해 대화중 화자가 피하고 싶은 화제를 서둘러 마무리 짓고 싶거나, 상대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피하고 싶을 때 사용되었다. 대화를 마무리 표시는 '뭐', '네'를 통해 마무리 짓기에 앞서 자신의 의도를 미리 표시함으로써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화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즉 이러한 감탄사의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은 담화를 원만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탄사에 대한 정의, 유형을 통한 전반적인 특성과 담화상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감탄사는 문장 성분상 독립언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결국 상대의 발화에 대한 반응이며, 선행 정보와 연결지으려는 화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즉, 담화상에서 상호 협력 행위를 원만히 수행하려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는 한정된 감탄사의 자료만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자료 밖의 자료에서 보다 풍부하게 나타나는 감탄사와 그에 따른 기능을 포착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우원(2002),「담화표지 '아'와 '어'의 특성 비교 연구」,『우리말연구』제12집, 우리말학회.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집문당.

김미선(2010),「감탄사의 범주설정에 대한 재고찰」, 『어문론집』제45집, 중앙어문학회.

김미선(2010), 「감탄사와 부사의 경계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제27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승곤(1996),『현대 나라말본』, 박이정.

김영철(2008),「우리말 담화표지 '자' 고찰」,『국어문학』45권, 한국어문학회.

김영철(2006),「국어 담화표지 '어'의 고찰」,『국어문학』41권, 한국어문학회.

김윤경(1948),『나라말본』,歷代韓國文法大系① 22. 탑출판사.

김은정(1998),「담화표지 '그래· 글쎄· 아니'의 기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주미(2004),「담화표지 '있잖아'에 대하여」,『한말연구』제14호, 한말연구학회.

김태엽(2000),「국어 담화표지의 유형과 담화표지되기」, 『우리말글』19, 우리말글학회.

김향화(2003),「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한국학논집』, 28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남기심・고영근(1993),『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노대규(1983),「부사의 의미와 수식 범위」, 『한글』pp131-154, 한글학회.

노대규(1997),『한국어의 감탄문』, 국학자료원.

박영순(1998),『한국어 문법 교육론』, 박이정.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부.

서태룡(1999),「감탄사의 담화 기능과 범주」,『東岳語文論集』35, 東岳語文學會.

신아영(2010),「감탄사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전략 교육 연구 -'네', '그래', '아니'류의 담화 기능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지연(1988),「국어간투사의 위상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지연(2001),「감탄사의 의미 구조」, ≪한국어 의미학 ≫ 8, 한국어의미학회.
신칠범(2011),「국어 감탄사의 담화표지 기능 연구 -화자의 담화전략을 중심으로 -」, 배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주호(199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실제:한국어 담화표지 분석」, ≪말≫ 17,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 학국어학당.
오승신(1995),「국어의 간투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승신(1997), 「담화상에서의 간투사의 기능」, ≪말≫22,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 학당.
왕문용・민현식(1993),『국어 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유목상(2007),『한국어 문법구조』, 한국문화사.
유창돈(1980),『어휘사 연구』, 집문당.
이광정(1987),『국어 품사 분류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연구』, 한신문화사.
이봉선(1998),「국어 담화표지 '거시기'의 의미분석」,『현대문법연구』13 현대문법학회.
이주행(1992),『현대국어문법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이주행(2000),『한국어 문법의 이해』, 월인.
이원표(1993),「의지감탄사 "예, 글쎄, 아니"의 담화분석」,『인문과학』제 69·70 합집,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원표(2001),『담화분석』, 한국문화사.
이원표(2001),『담화분석-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실례』, 한국문화사.
이혜영(1994),「담화표지 '글쎄'의 담화 기능과 사용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연구소.
이희승 편(2001),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임규홍(1995),「담화표지 '뭐냐, 있지'에 대하여」,『어문학』56, 한국어문학회.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1』, 한국 방송 통신 대학교.
장경희(1985),『현대국어의 양태범주연구』, 탑출판사.

장수군(2008),「한・중 감탄사의 대조 연구 -일 음절 한・중 유사감탄사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영옥(2002),「한국어 담화표지의 특징 연구」, 『화법연구』4, 한국화법학회.
전영옥(2008),「구어와 문어에서의 감탄사 비교 연구」, 담화·인지언어학회 제30회 정기학술대회 학술발표자료.
정선주(2005),「한국어 감탄 표현의 유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렬모(1946),『신편고등국어문법』, 탑출판사.
정인승(1956),『표준고등말본』,歷代韓國文法大系① 61. 탑출판사.
정호상(2004),『주요 어휘 용례집 : 부사·관형사·대명사·수사·감탄사·의존명사 편』, 국립국어연구원.
최현배(1971),『우리말본』, 정음문화사.
최현배(1980),『우리말본』, 정음문화사.
허재영(2001),「감탄사 발달사」,『우리말본』9, 한국어 의미학회.

<사전 및 교과서>

한글학회(1991),『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
최태경(1999),『표준국어대사전』 , 두산동아.
신기철・신용철(1988),『새우리말큰사전』, 삼성이데아.
이희승(1982),『국어대사전』, 민중서림.
교육인적자원부(2003),『고등학교 문법』,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 연구소편.

<TV 드라마・ 시트콤 대본>

KBS 수상한 삼형제 : 59회, 60회
KBS 신데렐라 언니 : 2회
SBS 파리의 연인 : 1회, 8회, 10회, 11회, 15회, 18회
SBS 인생은 아름다워 : 11회, 15회

SBS 대물 : 3회

MBC 지붕뚫고 하이킥 : 2회, 118회

MBC 욕망의 불꽃 : 13회, 41회, 42회

MBC 개인의 취향 : 16회